

# 장마철 큰 피해 우려... 벼 병해 발생 대비해야

### 5월 중·하순 기온 평년보다 1~3도 낮은 저온현상 발생 일찍 모내기한 논 벼 생육 지연... 흰잎마름병 등에 취약 의심시 농진청 등에 문의해 피해 예방해야... 방제도 중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최근 이상기온과 국지적 소나기 등 평년과는 다른 날씨로 벼 생육이 지연돼 장마철 큰 피해가 우려되며, 병 발생 초기 방제의 중요성을 7일 강조했다.

대부분 지역의 5월 중·하순 기온이 평년 대비 1~3도 낮은 저온현상이 나타나 일찍 모내기한 논이 벼 생육이 지연됨에 따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을 때 갑작스런 병 발생이 우려된다.

벼잎마름병은 주로 생육 중기인 7월 초·중순 처음 발생하며 장마와 태풍 침수로 인해 확산된다. 잎이 말라 죽거나 허약해 변해 광합성이 떨어져 쌀 품질이 나빠지고, 이른 시기에 감염되면 품종에 따라 출기가 말라 죽는다. 발병 시기에 따라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하기도 한다. 초기 병 증상은 바람이나 가뭄 피해, 키다리병 증상과 비슷하다. 이로 인해 방제시기를 놓치거나 다른 약제를 사용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병 진단이 중요하다. 병이 의심되면 농촌진흥청 혹은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벼 잎 상층부 세균이 침입하므로 태풍이나 침수 피해 직후에 적용 약제를 바로 뿌려야 한다.

벼 생육 후기에 잘 발생하는 세균벼알마름병, 벼잎집무늬마름병, 벼도열병의 예방과 방제도 중요하다.

세균벼알마름병에 감염되면, 낱알이 여물지 못해 이삭이 축적이 되므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다. 특히 이삭이 나오거나 꽃이 필 때 고온다습하면 병 발생과 피해가 증가한다. 이삭이 나오기 전후 육술린산이나 가스가마이신 계통 적용 약제를 뿌려 병 발생을 예방한다.

벼잎집무늬마름병은 벼가 무성해 군락 내부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맞춰 발리다미아신에이, 핵사코나졸 계통 적용 약제를 뿌린다. 벼잎도열병에 감염되면 잎에 방추형 갈색 병징이 나타나기 시작해 병이 심해지면 포기 전체가 붉은빛을 띠며 생장이 억제된다. 잎도열병 병원균이 이삭을 감염시켜 이삭도열병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잎도열병 발생 초기에 병징이 나타나면 즉시 방제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도열병은 낮은 온도의 다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하므로 장마가 늦어지는 올해에는 더욱 관심을 갖고 병 발생을 예방한다. 병징을 확인한 즉시 카프로미드, 트리사이클라졸 계통 등의 작용 약제를 뿌려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문준경 과장은 "올해 이상기온 환경에서도 벼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병 발생을 미리 살펴 방제 정보를 적극 알리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집중호우 피해예방 현장 점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7일 김제시 죽산면 논콩 재배단지에서 집중호우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경진원, 중점업종대상 FTA활용 글로벌 비즈니스 무역 실무교육

### 실무진 설명 통해 무역 관련 영문계약서 등 실무지식 습득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라북도 FTA활용지원센터(이하 FTA센터)에서 이번 달 1차 중점업종대상 FTA활용 글로벌 비즈니스 무역 실무 교육이 개최됐다.

FTA센터는 생활용품·기계·화장품 업종을 금년도 중점업종으로 선정하고, 수출입 시 필요한 각종 FTA 활용 이론과 실제 사례 등의 집중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출기업의 실수를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국내 중점업종업체의 무역경쟁력을 위해 마련됐다.

1차 중점업종대상 FTA활용 글로벌 비즈니스 무역실무 교육은 오는 16일 경진원 2층 도전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총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관세사의 FTA활용 및 수출입통관절차 교육과 도내 중점업종 실무진의 '글로벌 비즈니스 무역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실무진의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무역 관련 영문계약서와 서류작성 등의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도내업체들의 실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FTA센터는 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컨설팅팀과 3자 확인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FTA 실무교육 ▲수출 초보북강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등 기업실무자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FTA 체결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된 '원산지관리사' 교육은 지난 1, 2차 모집 모두 조기 마감되는 높은 수요를 보여준 바 있다.

조지훈 원장은 "도내 중점업종업체가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절차에 관련된 실무 이론을 파악하고 업무에 도입하여 수출입 능력을 향상시킬 기대한다"며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인한 FTA 활용인력 수요급증에 부응하여 탄탄한 도내 FTA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여 및 문의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hkr) 또는 경진원 해외시장팀(063-711-2044)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 관세, 통관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FTA센터 내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063-711-204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물 고인 신호등, 거리에 입간판 보면 돌아서 가야”

### '지난해 못지않은 긴 장마' 예상 따라 전기안전공, 감전사고 피해 예방요령 제시

기상관측 이래 39년 만의 '지각장마'라는 기록과 함께 지난해 못지않은 긴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가운데 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7일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주의를 당부하고 예방법을 제시했다.

공사가 발간하는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여름철 장마가 한창인 6~8월에 일어난 감전사고 사상자(179명)가 전체(508명)의 3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인재로 미리 요령을 알고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에 공사는 ▲하수구나 배수시설 물길 관리 ▲벗겨지거나 갈라진 전선 교체 ▲침수 시 누전차단기 off 침수된 전기제품 점검 후 사용 ▲폭우 번개 시 전선주 점검금지 ▲빗속 방치 전선주 발견 시, 즉시 '119'(소방청)나

'123'(한국전력), '1588-7500'번(한국전기안전공사)로 신고 등을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휴가철 계곡이나 유원지, 캠핑장 주변에 있는 전선을 아무 것이나 끌어 쓰는 것도 누전이나 감전사고의 위험을 부른다"며 "민약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차단기를 내리고 119에 신고한 후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전선이나 도체로부터 떨어놓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전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의식과 호흡, 맥박 상태를 살핀 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사고 직후 심각한 증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화상이 관찰되거나 골절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합부로 물이나 음료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 동서도로 청정 가로숲으로 탈바꿈

### 개발청, 조성사업 마무리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중모)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탄소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녹색 기반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동서도로 내 가로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 가로숲 조성사업'은 총 3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서도로 16.47km 구간 내에 해송 400본, 화살나무 2만6,080본의 수목을 식재했다.

이번에 조성된 동서도로 자전거 도로변과 누리생태공원에는 토양의 염도가 높고 비탈이 강해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해풍에 강한 해송 등 수종을 선정해 식재했다.

특히, 동서도로 자전거 도로변에 식재된 화살나무 가로숲은 가을철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군식을 통한 열식 조성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경시선 유도과 자연 친화적인 휴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녹화사업은 통해 계절마다 다채로운 색의 웃을 입는 새만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가로숲 조성사업 등과 같은 적극행정을 다양하게 추진해 명품 새만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반성과 혁신'에 시동

### LX, 비대면 화상회의서 "지적사업 관성 인해 디지털 혁신 노력 부족"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이 반성과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LX공사가 김정렬 사장 체제 이후 디지털 혁신을 통한 데이터플랫폼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관성화된 조직문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외의 갈등, 부서 협업 미흡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재점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LX공사는 내부 혁신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지난 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임원진, 전국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참여 가능한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아 그동안의 관성으로 인해 디지털 혁신과 대국민 접점 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반성했다.

특히 LX공사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디지털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 중 하나인 지적재조사 8년째 지지부진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준비를 앞두고 적정 예산 확보, 복잡한 절차, 경계 협의·조정금 등이 개선되지 않는



LX공사는 내부 혁신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지난 6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임원진, 전국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참여 가능한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다면 사업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업무처리 혁신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자성도 나왔다. 매년 지적되는 신속한 업무처리, 공 급자 중심의 업무처리 등 국민 눈높이에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데 안이했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한 공간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쇄신 노력도 요구됐다. 단발성이나 소규모 사업, 중복 사업이 많은 데다 디지털트윈 관련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연장선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의·조정금 등이 개선되지 않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LX공사는 이날 마련된 국민을 위한 미래혁신포럼을 정례화하는 동시에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사업 혁신, 조직 혁신, 인사 혁신, 문화 혁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진정한 혁신은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해결경장(解決境界)의 자세로 오늘 논의된 사항을 재검토해서 대안을 만들고 한국판 뉴딜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민간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에코시티 민간공동주택  
건설현장 하도급률 제고 건의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전주에코시티 내에서 시행중인 민간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를 위해 7일 태영건설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이날 전주시와 협회는 전주 에코시티 15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태영건설 본사를 방문해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다수참여와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전주시 건축인허가를 총괄하는 유상봉 건축과장이 동행해 해당 현장에서의 도내 업체 참여를 강력히 건의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상봉 과장은 "전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건설 현장에 정착 지역업체의 참여를 저조하다"며 "특별히 에코시티는 전주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개발지구이니만큼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여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지를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

협회 관계자도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창출과 건설장비·건설자재의 지역 구매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태영건설 업무담당자는 "추후 사업계획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전주시 하도급관리팀(팀장 김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합동으로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대형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공사현황을 확인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 추구를 지역 자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공사를 시행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창립 60주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여름에 다다라다 다사이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벤트는 해당기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하고 농협은행 인출식 계좌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540명에게 김치냉장고(1명), 스텔라터(5명) 문화상품권 3만원(100명), 스타벅스 기프트콘(434명)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이벤트 대상고객 중 자동이체 금액이 10만원 이상 1회 이상 입금된 고객을 대상으로 60명을 추첨해 농촌사랑상품권 10만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2는 중복 당첨 가능하다. 이벤트3는 농협은행 공식 SNS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복합주권' 4행시를 지어 댓글로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농협 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의 이벤트 페이지와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